

북한 기도회

2024년 11월



1.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병 규모가 1만 2천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미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이유로 외화벌이와 무기 기술 도입, 실전 경험 축적 등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는 타국의 전쟁에 자국민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대되어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립니다. 북한의 전쟁 참여가 멈추고 더 이상의 무고한 피흘림이 중단되도록,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은 단독 초상회장 (배지)를 관리들이 착용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와 동등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지칭하던 용어 ‘태양’도 이제는 김정은을 수식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연출하고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상화가 강화될 수록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행태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적어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역시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갇혔거나 붙잡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5. 억류된 북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억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한 사역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 모 선교사님이 올해 초 러시아에서 체포되어 구금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간혀있는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간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화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부족해진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시중의 외화를 국가로 끌어 모으고, 시장 대신 국가 배급과 국영상점 중심 경제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민생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그리하여 실제로 주민들의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자신의 안위를 핵보유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6.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 북부 지역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내지에서 들려오는 수해 피해와 북한의 대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해 복구는 수재민 지원보다도 김씨 일가 초상화나 우상화 사적지 보존이 먼저이고, 각종 세외 부담 강요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역에는 생필품과 식수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필요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수재민들, 특히 수해를 입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3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 중 대다수가 원치 않는 결혼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불안 속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 현지 교회 성도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듯 본이 되는 탈북여성의 가정이 늘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탈북 여성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편과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통해 제삼국과 북한의 가족들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시 받던 여성들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계 경제와 국가 노동력 및 인구문제까지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루 속히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들이 가진 폭넓은 관계망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 채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도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의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